

이와미 은광과 국제 사회의 연관성

400 년의 역사를 지나오는 동안 이와미 은광은 두 차례에 걸쳐 활발하게 국제 사회와 연관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1527 년 은광이 발견된 직후부터 1600 년대 초기까지 지속되었고 두 번째는 메이지 시대(1868~1912) 일본의 급격한 근대화과 궤를 같이합니다.

대항해 시대의 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제국이 세계 무역을 확장하며 남아메리카와 아시아 등 넓은 영토와 수많은 민족을 식민지화했던 1500 년대에 은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상품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배권을 확립할 수 있었던 부의 원천, 즉 멕시코의 과나후아토, 볼리비아의 포토시, 그리고 이와미 은광 등에서 채굴된 은은 세계 경제의 유통류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이와미의 은은 주로 포르투갈인들에 의해 거래되었는데 그들은 명나라에서 사들인 비단과 이와미의 은을 교환했습니다. 또한 명나라에서 비단과 교환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이와미의 은은 포르투갈 해양 제국 전역에서 유통되었습니다. 1500 년대 후반 전 세계에서 거래된 은의 총량 중 적어도 10%는 이와미 은광에서 채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국제 교역의 또 다른 산물인 회취법(灰吹法)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유할 수 있게 된 계기는 역시 국제 교역이 가져다준 회취법이라는 제련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1533 년에 한반도에서 전해진 이 기법을 바탕으로 순도가 높은 은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1603 년 도쿠가와 가문이 일본 전역을 통일하고 그후 1867 년까지 일본을 통치하는 에도 막부가 성립된 후에는 외국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쇄국 정책을 실시하면서 이와미 은광과 세계 경제의 연결고리는 단절되었습니다.

식민지와의 연관성

도쿠가와 가문이 통치하던 에도 막부가 붕괴되고 1868 년 이후 다시 외부 세계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이는 메이지 천황(1852~1912)을 주권자로 하는 신정부의 수립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청나라와의 전쟁인 청일전쟁(1894~1895)에서 승리한 일본은 대만을 포함한 중국의 일부 영토를 획득하여 식민지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와미 은광은 후지타구미라는 기업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1886 년에 은광의 채굴권을 취득한 후지타구미는 일본 내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개의 광산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후지타구미는 소유한 광산의 낮은 수익성 때문에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1896 년 새롭게 획득한 식민지 개발에 열을 올리던 일본 정부는 대만의 유망 광산 두 곳에 대한 권리를 각 회사에 할당했습니다. 이 찬스를 놓치지 않은 후지타구미는 대만섬 북부 지우펀 인근에 있는 루이팡(瑞芳) 광산의 금과 구리 채굴권을 할당받게 되었습니다.

이와미 은광과 대만

후지타구미는 대만에서 보유한 광산에 거액의 금액을 투자하고 채굴과 제련을 위해 최첨단 설비와 기술을 도입했는데 그 일부는 이와미 은광에서 개발된 것이었습니다. 이와미 은광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한 기술자 등 많은 전문가들도 루이팡으로 파견되어 이와미와 루이팡 두 광산 사이에서 활발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1923 년 세계 시장에서 구리 가격이 하락하자 후지타구미는 이와미 은광과 대만에서의 사업을 돌연 중지했지만, 그 시기 루이팡은 이미 활기 넘치는 도시로 성장한 이후였기 때문에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후 일본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대만의 광산 개발은 지우펀(九份) 인근의 진과스(金瓜石) 금광으로 이어졌고 1930 년대에 절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35 년에 일본제국 내에서도 가장 생산성이 높은 시설로

자리잡은 진과스 금광은 연간 최대 2.6 톤의 금을 생산했습니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일본의 손을 떠나 대만 기업이 운영하게 되었으며 1987 년까지도 조업이 계속되었습니다. 현재 사적으로 지정된 이곳 박물관에서는 지우펀 지역의 광산 개발 역사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